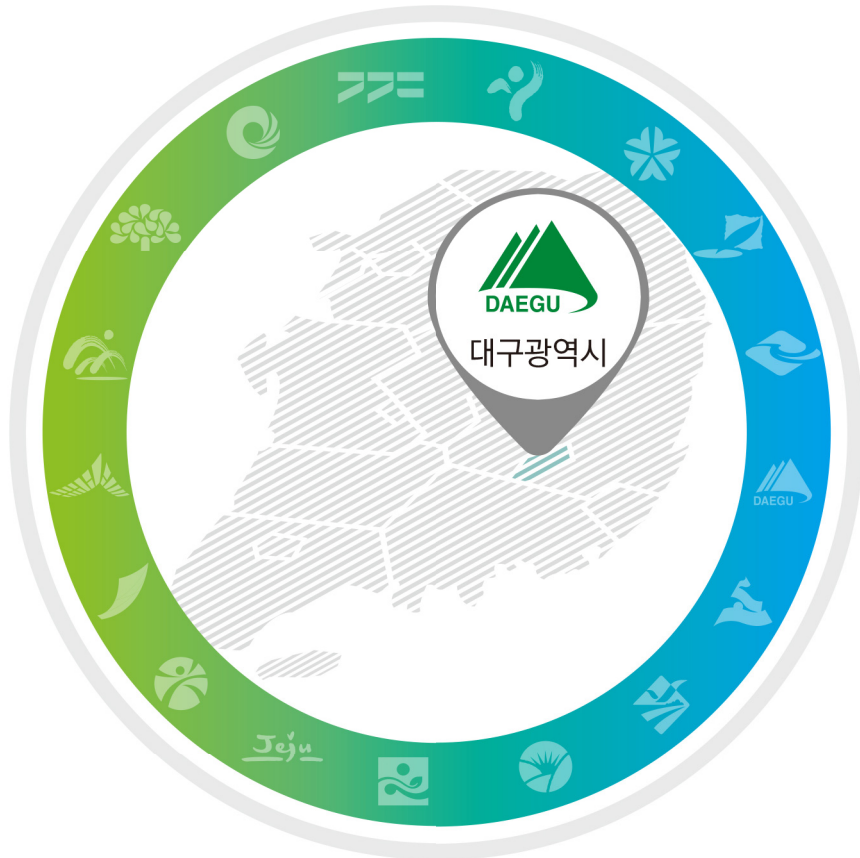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연구진

고경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건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04
II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관련 현황	
	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관련 현황	08
	2.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설정 분석	10
	3. 고졸취업의 현실	11
III	대구광역시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1.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정책 현황	13
	2. 국내외 정책 분석	15
IV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 방안과 과제	
	1. 국내외 유사사례 비교의 시사점	26
	2. 대구광역시의 정책 추진방향	27
V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8

I

서론

연구의 추진배경

-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결과 2017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대로 상승하였으나 그 후로 지속 하락해 2021년에는 28.6%까지 떨어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부(2020)는 취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현장실습 안전·권익 강화, 기업 혜택 확대,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직업계고 졸업생이 양질의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지표가 비례하지 않고 있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슈 브리프(2022, 236호)에 따르면 특히 직업계고 취업률이 경기지표와 낮은 상관성을 보이며 직업계고 졸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아울러 기계화·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존 업무의 자동화 대체율 심화, 고학력 위주의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의 직업계고 취업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기업, 직업계고, 대학 등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함
- 일자리 부족 현상과 병행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불균형이 발생.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SKY대학에 필적하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듯이 생산 현장 인력의 양성과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직업계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계고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급락에 따른 정책대응의 필요성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2022년 서울의 직업계고 3곳 중 2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음. 직업계고의 전반적인 부진 탓에 고졸 청년고용률은 6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순위임
 - 반면에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교육 이상) 이수율은 2020년 기준 69.8%로 OECD 1위임(정의진·최만수·최세영, 2022). 청년들의 취업난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력 인플레이’만 나날이 치솟는 형국임.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호소하고 있음
 - 취업의 질을 따지는 유지취업률도 심각한 실정임. 2020년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 후 직장에 신규로 취업한 이후 6개월 후까지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77.3%로 나타났고, 1년 후 유지취업률은 65%로 현저히 줄어든 수치를 보임
 - 직업계고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줄어든 반면 대학 진학인원이 취업 인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현상을 보임. 2021년에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대학 진학을 선택. 이는 ‘취업을 우선하는 실용교육’을 표방한 직업계고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현상임. 고졸 취업이라는 난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고졸채용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혁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저해 요인 해소를 통한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학생들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직장 생활이 용이하지 않다고 토로해 왔음. 이는 고교 졸업 직후에 곧바로 취업을 생각했던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음.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2021년 45%로 전년 대비 2.5%p 늘었음.

- 직업계고 졸업생의 74.9%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직. 1,000명 이상 기업에 취직한 비율도 14.2%에 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한 졸업생도 38.4%에 달하며, 5.8%는 5명 미만의 직장에 취직하였음
- 직업계고를 졸업한 취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전문성을 개발하여 직장 내 자아실현과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지원방안 강화 필요
-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정착률 제고라는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를 포함해 전방위 협치와 협업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
 -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보통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기업, 지역사회, 싱크탱크 등임
 - 정책수단의 유형은 재정·금융수단과 규제·절차수단, 거시적·포괄적 정책수단과 미시적·선택적 정책수단 등으로 구분 가능
 - 지역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경로 마련과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정책 수단 마련을 통한 고졸 취업의 선순환 고리 구축
- 이에 본 연구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대구형 현장학습 사업 등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고 성장한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지역기업에 연계 채용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해 지역 산업현장과 기업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 지역만의 고졸인재 기업 정착률을 제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적성과 산업분야 및 직무 탐색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단계에서 조기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산업현장 맞춤형 심화교육 확대방안 연구: 고등교육으로는 부족한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수요 유형 조사
 - 고졸 사원의 초기 기업적응력 제고방안 연구: 직업계고 출신자들이 의무교육 이수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상 발생. 이는

부족한 사회성과 일천한 근무 경험, 낮은 현장 적응력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에 정착하도록 기업 내·외에서 지원하는 효과적 방안을 연구

- 고졸인재 채용률을 제고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유형 연구: 인건비 지원 등 고졸인재 채용 시 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지원정책 등 조사
- 앞서 제시한 정책목표에 대한 타 시도 및 민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품질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II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관련 현황

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관련 현황

- 2021년 직업계고 전체 취업률은 28.6%, 진학률은 45%로 미래 직업능력을 갖춘 기능인 양성이란 직업계고의 당초 교육방향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으며, 취업자 중 졸업 1년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취업자의 비율이 10명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 2020~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현황, 교육부

(단위 : 명,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중 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상세 자료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2021	28.6	55.4	45	7만8,994	2만2,583	3만5,529	1,809	862	1만8,211
2020	27.7	50.7	42.5	8만9,998	2만4,938	3만8,215	1,585	970	2만4,920
전년대비	0.9%p ↑	4.7%p ↑	2.5%p ↑	△1만1,004	△2,355	△2,686	224	△108	△6,709

- 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은 마이스터고 69.3%, 특성화고 64.4%, 인문계 직업반 59.1% 순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가장 높음. 취업률 순서도 마이스터고(75%) > 특성화고(53.4%) > 일반고 직업반(35.9%) 순으로 동일함

표 2-2 | 2020~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 현황, 교육부

(단위 : 명, %)

고교유형	본조사		1차 유지취업조사		2차 유지취업조사			졸업자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	유지취업 현황		보험 가입자	유지취업 현황		
			유지 취업자	유지 취업률		유지 취업자	유지 취업률	
전체	2만4,858	2만5,231	1만9,219	77.3	2만3,959	1만6,151	65	8만9,998
마이스터고	3,501	3,274	2,874	82.1	2,958	2,425	69.3	5,666
특성화고	2만0,717	2만1,185	1만5,871	76.6	2만0,182	1만3,348	64.4	7만9,503
일반고 직업반	640	772	474	74.1	819	378	59.1	4,829

표 2-3 | 2021년 학교 유형별 진로현황, 교육부

(단위 : 명, %)

고교유형	취업률	취업자	진학률	진학자	기타			졸업자
					제외인정자	미취업자	입대자	
전체	55.4	2만2,583	45	3만5,529	862	1만8,211	1,809	7만8,994
마이스터고	75	3,629	6.6	377	27	1,210	492	5,735
특성화고	53.4	1만8,444	47.4	3만3,047	785	1만6,092	1,295	6만9,663
일반고 직업반	35.9	510	58.5	2,105	50	909	22	3,596

- 지역별로는 졸업생 중 대학진학, 입대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경제활동희망자 기준 2021년 취업률은 경북(65.1%), 대구(61.8%), 대전(58.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 졸업자 수 대비 28.3%(1,194/4,218)에 불과한 수준임

표 2-4 | 2021년 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교육부

(단위 : 명, %)

구분	취업자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졸업자	학교수
	취업률(%)	취업자	진학률(%)	진학자					
경북	65.1	1,863	30.2	1,369	267	41	997	4,537	54
대구	61.8	1,194	50.2	2,119	134	33	738	4,218	19
대전	58.9	739	43.2	1,025	74	20	515	2,373	12

구분	취업자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졸업자	학교수
	취업률(%)	취업자	진학률(%)	진학자					
충북	58.1	995	52	1,952	32	57	718	3,754	26
경남	57.6	1,164	44.5	1,725	102	28	857	3,876	35
인천	57.2	1,557	42.8	2,164	115	57	1,165	5,058	28
충남	56.6	1,187	41	1,551	81	57	911	3,787	37
전남	55.6	1,254	42.7	1,808	88	82	1,004	4,236	47
서울	55.5	4,129	40.5	5,320	278	93	3313	1만3,133	74
세종	53.3	48	44.8	77	-	5	42	172	2
울산	53.2	518	50.7	1,053	30	19	456	2,076	11
부산	52.8	1,266	53.1	2,882	103	47	1,133	5,431	36
광주	52.3	637	48.1	1,194	42	28	581	2,482	13
제주	52.1	263	60.2	826	23	19	242	1,373	9
경기	51.5	4,306	47.3	7,835	177	199	4,055	1만6,572	108
강원	50.3	683	42.5	1,091	93	29	674	2,570	35
전북	49.1	780	46	1,538	170	48	810	3,346	35
전체	55.4	2만2,583	45	3만5529	1,809	862	1만8,211	7만8,994	581

2.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설정 분석

-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이정민·유명환, 2021)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는 변동요인을 크게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외적요인(학교, 교육 등)

-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게 하는 외적 변동요인으로는 학교 유형(마이스터고), 학교 만족도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받은 진로교육, 다양한 취업 관련 지도, 자격증 수나 자격증 관련 교육기회, 교내외 수상 실적이 큰 영향을 미쳤음

내적요인(진학동기, 진로 성숙도 등)

-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게 하는 내적 변동요인으로는 직업계고 진학 동기(취업), 전문교과에 관한 이해와 관심,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취업 준비 성숙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 포부를 가졌거나 진로에 대한 성숙도가 높거나 자존감이 높고 자기 적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식 변화(윤종혁, 2019)에 따르면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사유로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남

3. 고졸취업의 현실

- 고졸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능력과는 무관한 출신 학력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고졸 사회초년생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인터뷰 보고서(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86.9%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정규직은 13.1%에 불과함. 고졸 취업자 59%가 덜 배웠다는 무시와 차별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함. 학력 차이는 승진이나 임금 차별로도 연계되어 고졸 근로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로 근로하거나 학력 개선을 위해 진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됨
- 학력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더라도 ‘선진학 후취업’에 비해 보상이 낮음. 한국사회가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대졸자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데, 선취업자들은 후진학을 하게 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아 기대한 만큼의 후진학을 통한 이득을 누리기 어려움. 입사 시점의 학력이 노동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완전하게 극복하기 어려움
- 또, 직업계고졸 취업자의 경우 가정형편이 부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 후 개인의 발전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후진학에 소홀하거나 후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역량 부족의 문제도 있음. 직업계고졸 취업자 중 기초 학습 역량 수준 미달로 후진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더라도 일학습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어 개인별 역량에 따라 진로 설계를 달리할 필요 있음
- 한편, 위 보고서(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인터뷰 보고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에서 취업자의 현장실습과 연계 여부에 대해 77.5%가 연계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함. 대구지역은 현장실습 제도가 부족하므로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고졸 취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III

대구광역시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1.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정책 현황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4차산업시대 성장단계별 경력 개발 지원을 통한 Smart Factory 인재 양성」(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 공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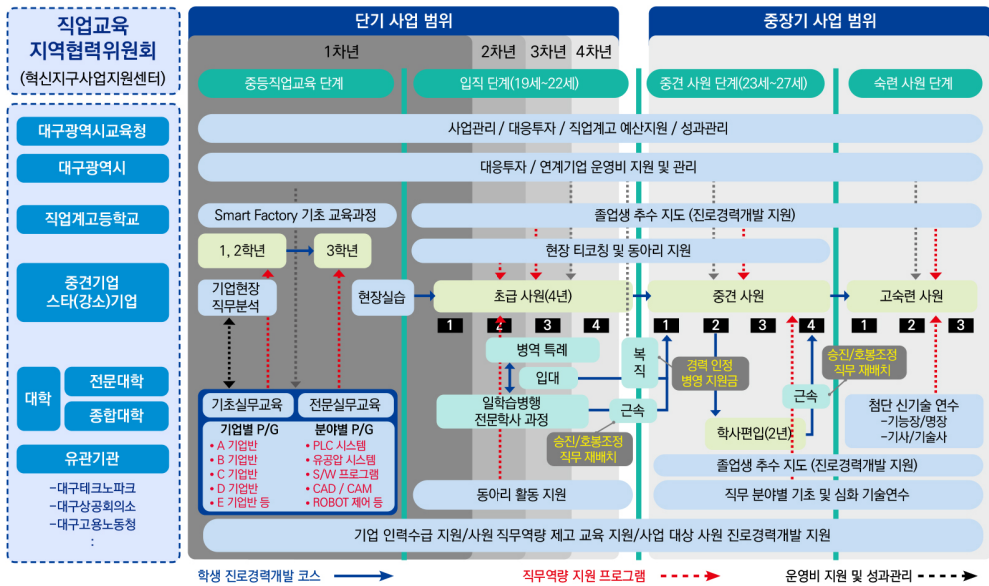
- 사업목표는 2개로 ① 지역 기능-기술 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와 ② 자기 주도적 진로경력 개발을 통한 Smart Factory 인력양성임

그림 3-1 | 직업교육 혁신지구 핵심과제 및 전략

핵심 추진 과제 및 전략			
1	2	3	4
혁신지구 협력체계 구축	Smart Factory 교육과정 운영	자기주도적 성장경로 지원	체계적인 성과관리
1. 직업교육지역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2.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구축-운영 3. 직업교육 원격지원 센터 구축 및 운영 4. Smart Factory 기업 발굴 및 협약	1. Smart Factory 교육과정 편성-운영 2. 고교학점제 연계 전문기관 위탁교육 3. 기업인력수요 직무 기술심화교육 지원 4. 재직자 후학습 및 직무역량교육 지원	1. 진로비전 목표관리 프로그램 운영 2. 성장단계별 역량관리 및 후학습 지원 3. 장기 근속 및 의무병영 전향적 지원 4. 경력개발 지원-공유 재직자 동아리 운영	1. 만족도 중심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2. 성과제고 성과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3.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4. 혁신지구 인재인증 시스템 개발-운영

- 사업내용은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현장 맞춤형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입직한 후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해 고숙련 정착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그림 3-2 |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산업단지별-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지원 사업」(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 공동 추진)

- 최근 5년 동안 약 3만 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 타 시도로 유출되었음. 이처럼 심각한 대구시의 인력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협업해 2019년부터 「산업단지별-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함.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 기업을 견학하고 입직 전 적성에 맞는 직종과

직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대표 사업임

스마트팩토리 선도 청년 채용지원 사업

- 스마트팩토리 분야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 학생 또는 관련분야 직업계고 졸업자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속권 지역 정착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임. 의무교육을 마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고졸 인력의 부족한 사회성과 경험, 낮은 현장 적응력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채용한 고졸사원의 조기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직 초기 10개월 가량의 장기간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 국내외 정책 분석

1) 국내 주요사례

“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제도(work based learning)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임. 도제학교는 현장교사가 기업에서 NCS 기반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고, 공동훈련센터나 학교에서 이론교육 후에 정부·산업계의 평가에 따라 도제자격을 주는 교육훈련 제도를 말함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일)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는 기준임.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현장 교육훈련이나 자격 전문가들로 개발진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국가가 인증·고시함

- 일학습병행제는 크게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재학생 단계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직업계 고교생이 2~3학년부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과 도제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하게 됨
- 이렇게 훈련받은 직업계 고교생이 기업에 취업해 후학습을 하게 되면 P-Tech 과정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받게 됨
-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현장훈련 비용, 훈련지원금, 전담인력 수당,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 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물품제조와 구매낙찰자 결정 시 가점(조달청) 등임
- 참여 가능 훈련 직무로는 생산관리, 품질경영, 화학물질, 기능성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제과, 바이오, 유가공,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임
- 참여근로자는 졸업직후 취업해 회사가 원하는 실무능력을 기업현장에서 익힐 수 있고 참여 과정에 따라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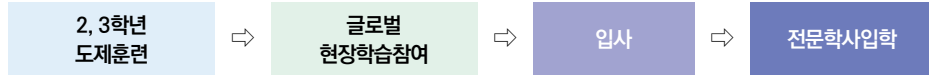
지역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아진산업¹⁾

- 산학일체형 도제훈련(고교 과정)
 - 아진산업은 2015년부터 매년 경북기계금속고 2~3학년 재학생(4~6명 정도)을 대상으로 프레스금형제작, 수동용접 분야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음

연도	학교	인원	분야
2015	경북기계금속고	5	프레스금형제작
2016		5	
2017		4	
2018		4	
2019		4	프레스금형제작 수동용접
2020		6	
2021		5	
2021		5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2. 7.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 운영사례 및 발전방안

- 도제훈련을 통한 우수학생의 현장 조기적응력을 증대시키고 도제훈련 종료 후에는 사내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과 사내대학(전문학사) 과정에 참여시켜 고속련 전문인재로 양성함.



• P-tech(전문학사 과정)

- 고교과정 도제훈련을 받은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진전문대학교에 일학습병행 총 1,742시간의 특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2022년 총 14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속련훈련 진행함

“선취업 후학습”

- 고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해 필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력과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선취업 후학습 대표사례

1) 재직자 특별전형

- 졸업 후 3년 이상 직장 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정원외 특별전형)에 입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즉, 대학에서 정한 일반선발 정원 외에도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전형
 - ※ 수능과 별도의 시험 없음,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대학별로 상이

2) 계약학과

- 산업체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과
 - (재교육형) 산업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 (채용조건형) 산업체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이 산업체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 과정 요구에 따라 요청 학과를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

계약학과 유형

계약학과 유형	
채용조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계약형) 대기업이 단독으로 대학과 계약하여 운영 • (제3자계약형) 공공기관이 산업체와 대학 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지원해주는 형태
재교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에서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

고교학점제, 교육부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토대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해당 과목을 선택해 이수 기준에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학과 내 또는 학과 간에 학생 선택과목을 개설해서 미래 직업수요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 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진로에 대해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 기존 제도와 달리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 이수를 인정해주고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므로 학습의 질이 보장되고 졸업으로 학생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전공 외 수업도 이수가 가능해져 학생이 졸업학점을 채우는 일에만 목표를 두고 학습을 진행할 위험이 있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경기도기술학교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부터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운영을 통해 뿌리산업에 특화된 6개월 내외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을 무료로 제공. 첨단기계학과, 전기에너지학과, 특수용접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자동차정비학과 등이 대표적 학과임. 더불어 경기 남부권에 자리한 경기도기술학교가 북부권의 직업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경기도 위탁대행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추세에 부응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에 특화된 미래기술학교 서비스도 시작해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에서 제공 중임
- 경기도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신규고용과 고용유지를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 매월 30만 원을 2년 동안 7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수단은 물론 중견기업이나 비영리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수단도 시행

2) 전국 교육청의 추진사업

부산시교육청, 협치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난 활로 모색

- 부산광역시청은 직업계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산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운영, 고교 학점제 운영 안착,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책적 후원에 주력 하였음
- 부산교육청이 부산은행과 협치한 ‘부산 직업계고 내일(My future·My job)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 업무협약은 취업난에 직면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직업계고 취업준비금 지급을 위한 바우처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카드 발급과 가맹점 관리,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추구
- 부산교육청은 ‘내일행복드림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바우처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임.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우수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부산지방 기업이의연합체인 부산상공회의소(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우수기업 탐방, 5개 기업 300명), 부산벤처기업협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산업협의체(현장실습 전공심화 연계교육 운영)와의 협력 사례 역시 우수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직업 교육을 활성화 한 사례임

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 지원금 등 '2022년 인천형 직업교육 계획' 발표

- 인천시 교육청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채용 문화가 실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래 직업역량과 전문기술 직업인 양성에 주목
- 인천의 지역 특성과 미래 산업의 동향을 반영해 학과를 개편하고 실용적 교육환경을 구축, 또한 도시농업, 농생명 분야 등 지역전략산업과 로봇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을 연계한 학과 개편도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기반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 나아가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 22개를 직업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할 계획임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기는 학습결손 해소와 맞춤형 보충수업 시행을 위해 학교 30개에 총 12억 원을 지원. 취업준비 기회 축소와 노동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 준비지원금 1인당 50만 원과 자격증 취득 응시료 전액도 지원
-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3학년 학생에게 매월 60만 원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해당 지원금은 자격증 획득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실습에만 참여하면 받을 수 있음
-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분야를 기존 항공정비(MRO)와 뷰티·바이오에서 소방, 관광·리조트, 반도체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임. 아울러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진로 교육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계고 졸업생 개별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울산시교육청, 기업과의 소통과 채용박람회 개최로 맞춤형 취업매칭전략 구사

-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울산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53.2%임. 11개 직업계고에서 2천76명의 졸업자가 배출돼 이중 518명이 취업. 울산지역 직업

계고 취업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해당. 참고로 울산의 직업계고 취업률이 낮은 것은 50.7%로 나타난 대학진학률이 상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임

- 맞춤형 정책수단으로는 CEO간담회, 교육감 기업방문, 산·관·학 간담회 등의 기업과의 소통 강화 정책과, 교사의 직업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계고 저경력·신규교사, 전입 보통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회 신설이 있음. 또한 농어촌학교 학생 복지사업으로 임차스쿨버스비 지원도 확대. 2021년 울산산업고, 울산기술공고에 이어 2022년에는 울산미용예술고까지 지원을 확대해 농어촌 학생의 장거리 통학 애로를 해소할 예정임
-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면접교육,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실습생의 기업적응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매칭 기회도 확대할 예정임
- 2022년부터 특성화고 1학년과 마이스터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학교 밖 교육 확대, 학점제 친화적인 학습공간 조성 지원, 직업교육 전문 지원단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지원
-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지원 사업을 도입해 추진.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기반으로 신입생 충원(1유형), 학업중단 완화(2유형), 취업률 제고(3유형),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4유형)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울산기술공업고(1유형), 울산미용예술고(2유형), 울산생활과학고(3유형), 울산애니원고(3유형)를 선정해, 학교별로 약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업계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연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 공동 추진, 기업 신규 인력 채용 시 직업계고 교육 수료생 채용 우대, 고졸자 취업 지원 위한 체계 구축으로 교육과 취업 연계 등임

전남교육청, 미래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및 산업체 연계교육 내실화, 학생 취업역량 증진 등을 추구하는 세부 사업을 구비

- 지역이 설정한 미래 신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학과개편, 특성화고 관심도 제고를 위한 혁신지원사업, 산학일체 도제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실험실습비와 시설 기자재 지원 등을 강조.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 및 학과 홍보,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지원관 내실화 등 직업계고 현장의 요구에도 유의
- 전남교육청은 교원과 전문직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괄·개발 분과, 기획·협력 분과, 연구·연수 분과 등 분과별 추진단을 운영. 전남형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지역민과 교육 실행자인 교직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개발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취지임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환경 구축을 지원

- 충남도 교육청은 지역 38개 직업계 고교(100개 과)에 개인안전 실습장비 구입비로 5억 6천만 원을 지원. 기계 계열에는 작업복·안전화·안전모 등을, 식품 조리계열에는 조리용 안전화, 조리도구 보관함, 조리모·조리복 등을 지원
- 직업계고 학생들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려면 실습실 내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과 안전 장비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충북교육청, 2020학년도 마이스터 고등학교(3개교)를 시작으로 2022학년도 특성화고(23개교)를 더해 전체 직업계고를 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

- 학점제 선도학교는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학점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형 중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모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

- 8개 운영모형은 세부 전공 코스형, 후 학습 지원형, 타 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1대 1매칭형(공동교육과정), 연합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연계형, 블렌디드 학습형 등임
- 마이스터고 전 학년과 특성화고 1학년은 수업을 204단위에서 192학점(교과학점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으로 줄여 수업량을 적정화. 단 특성화고 2, 3학년은 204단위 이수를 유지
- 직업계고는 역량 중심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전문교과Ⅱ(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을 위한 보충지도 과정을 계획해 시행
- 충북교육청은 총 3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학점제 기반 조성, 교원 역량 강화, 학교 운영 지원, 학교 밖 교육과정 연계 기반 조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직업계고 지원을 추진. 학점제 운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임.

경북교육청, 학과개편 우수사례

- 2020년 학교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경주공업고(스마트융합기계과 2학급), 김천 생명과학고(바이오산업기계과 1학급), 문경공업고(하우징디자인과 2학급), 의성공업고(웰빙조리과 1학급, 사물인터넷과 1학급, 스마트팩토리과 1학급), 청송자동차공업고(골프경영과 1학급) 등임
- 청송자동차고는 학교 개편을 통해 가칭 경북골프경영고등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1년 4월 의성지역 골프장인 엠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골프장은 약 500여 개 수준임. 반면 자동차 정비는 인력 수요 감소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경북골프경영고는 2022년부터 ‘골프경영과(1학급·여학생)’를 전국단위 모집을 시작. 2024년까지 완성학급을 달성하면 교명도 정식 변경. 더불어 1세대 캐디 출신인 김영미 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시스템을 확립 중임

- 경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특성화고 매력 제고를 목표로 혁신지원 사업 대상교를 선정. 선정된 학교는 공통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진로 지원과 자존감 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그 외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가로 수행

3) 해외 사례 분석

일본, “지역사회 취업알선제”

-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고등학교에 지역사회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가 정착됨. 2016년에는 취업희망 고졸예정자의 90% 이상이 실제 취업에 성공함(문부과학성, 2016)
- 일본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37%로 OECD 평균인 41%보다 낮음. 일본 고교생들은 대학 진학을 필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을 자격증이라고 부르기도 함
- 일본도 기업 내에서 학벌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승진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졸자에게 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존재함. 일본에서는 학벌에 따른 고용격차보다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느냐 졸업 후 공백기를 두고 취업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큼. 신졸(新卒)과 기졸(既卒)을 구분해 채용
-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봉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일본의 고졸자들은 사무직보다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취업처를 선호하며 대대로 이어온 가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음
- 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등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독일, “마이스터 제도”

- 독일은 전문적인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자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특히 도제교육 시스템을 통해 명장을 양성함
- 대다수 독일 젊은이들이 대학진학 대신 직업학교를 선택함. 2년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일주일 중 4일은 도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기능인으로 성장함
- 독일 마이스터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에도 성공한 경영인임. 10년 이상 고도의 전문기술을 익히고 연륜을 쌓은 마이스터들은 최고의 실력자로 대우받고 있음. 자동차 수리, 맥주 제조 등 약 350개 업종에서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비슷한 예로 영국은 도제제도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도제세금(Apprenticeship Levy)을 부과함(영국정부, 2017)

IV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 방안과 과제

1. 국내외 유사사례 비교의 시사점

유사 정책사례에 대한 적극적 벤치마킹 강화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 벤치마킹이 새로운 정책 고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임.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2021년 공동으로 추진한 「직업계고-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도 지역 기능-기술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진로경력 개발에 초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제를 좀 더 발전시킨 사례로 적극적 벤치마킹의 효과와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고졸 인력과 대졸 인력양성의 정책균형을 확보

- 유럽과 일본은 대학 진학자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안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의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반도체 인력은 9만9천285명임.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인력은 1천621명임. 그중 절반이 넘는 894명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해야 하는 고졸이며, 전문대 수준의 인력도 316명이

필요함. 반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대 주력 산업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인력 2만 8천50명 중에서 46%가 고졸 인력임. 그런데 고졸 인력을 공급해줘야 하는 특성화고는 지난 10년 동안 41.9%나 줄어들었음. 같은 기간 고등학생 수의 감소 33.5%보다 훨씬 큰 폭(이덕환, 2022)이므로 고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산업계의 자구노력과 정책당국의 지원병행

- 우리 산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생산 현장에서 강도 높은 업무와 잦은 교대 근무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기업이 고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개선될 수 있음
- 산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전략적 지원노력을 강화해야 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유인책을 산업단지 조성단계 혹은 상업지구 지정단계와 병행해가면서 제공하는 방식을 비롯해 직업계고 출신자를 대상으로 채용과 유지단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2. 대구광역시의 정책 추진방향

1)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현실적합성 제고

현 사업의 특징과 한계

- 2021년부터 추진한 「직업계고-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상위권 학생의 참여에 초점을 둔 특화사업임. 단절적 직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해 후진학과 근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제도임. 고졸 청년의

조기 입직과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구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의 본보기가 되도록 의도한 프로그램임

- 이와 별개로 2019년 시작된 「산업단지별-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지원 사업」은 직업계고 중하위권 학생의 참여에 초점을 둔 특화사업임. 동 사업은 일자리 관련 유관 기관장 초청 모임은 물론 지역 산업단지공단과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해 시와 교육청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공의 장벽을 초월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실습과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직업계고-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중장기 커리큘럼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지만 「산업단지별-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지원 사업」은 단기 체험성 사업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이나 준비가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맞춤 지원책으로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임
-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이정민, 유명환, 2021)에서는 진로 결정 수준과 준비 행동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표 4-1 | 직업계고 학생의 유형

구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비율(%)
취업준비 성숙형	고	충분	22.1
취업준비 탐색형	고	부족	50.3
취업준비 유예형	저	부족	27.6

- 진로 결정 수준이 높고 진로 준비 행동이 충분한 상태인 상위 22.1%를 취업준비 성숙형으로, 진로 결정 수준은 높으나 진로 준비 행동이 부족한 상태인 중간 50.3%를 취업준비 탐색형으로,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이 모두 부족한 상태인 하위 27.6%를 취업준비 유예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취업준비 탐색형과 유예형은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진로설정을 위한 다양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위 유형을 대구시 사업에 적용해보면 크게

「직업계고-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참여자는 취업준비 성숙형으로, 「산업단지별-직업계고 현장학습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는 취업준비 탐색형과 유예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현장학습 사업은 최근 진학비율이 차츰 높아지는 상황인 직업계고의 흐름을 잘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진로를 설정하고 결정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인 3학년 2학기에 추진되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현장학습 후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존 사업 추진 시기를 고교 1학년으로 앞당기고 진로탐색과 현장체험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① 자신의 위치와 놓여진 상황,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과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등, ②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을 조기에 찾고 탐색과 고민의 과정을 거친 후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실 반영한 통합 방안 제시

- 따라서 현행 2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기별, 진로결정 수준과 준비상황에 따라 통합안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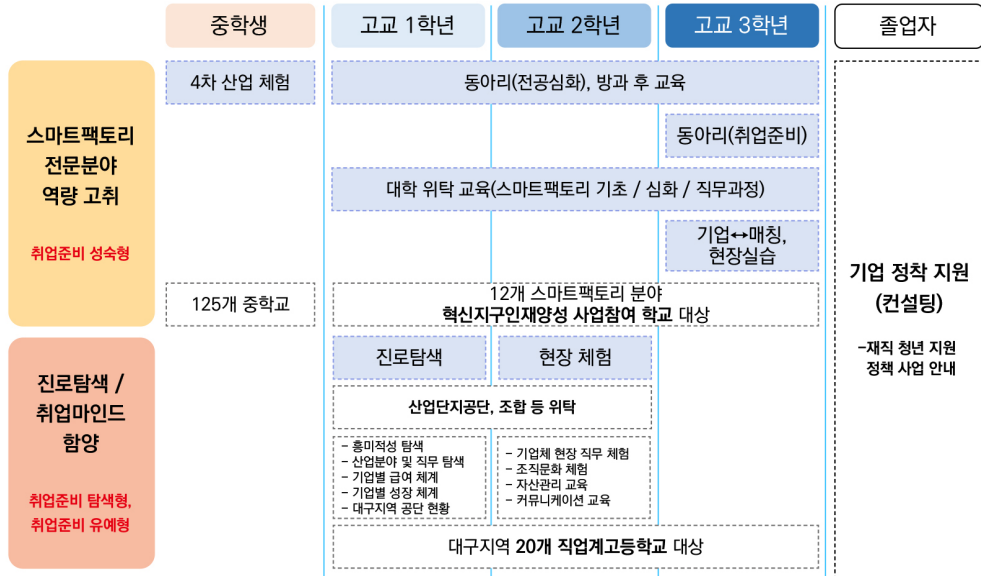
그림 4-1 | 대구시 직업계고 관련 사업 통합 방안

① < 현재 : 2개 사업 개별 추진 >

	중학생	고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자
직업교육 혁신지구	4차 산업 체험	동아리, 방과 후 학습			기업 정착지원
				취업동아리	
		대학 위탁 교육		기업 위탁 교육	
현장 학습				현장체험 & 기업매칭	



② < 통합 : 통합 조정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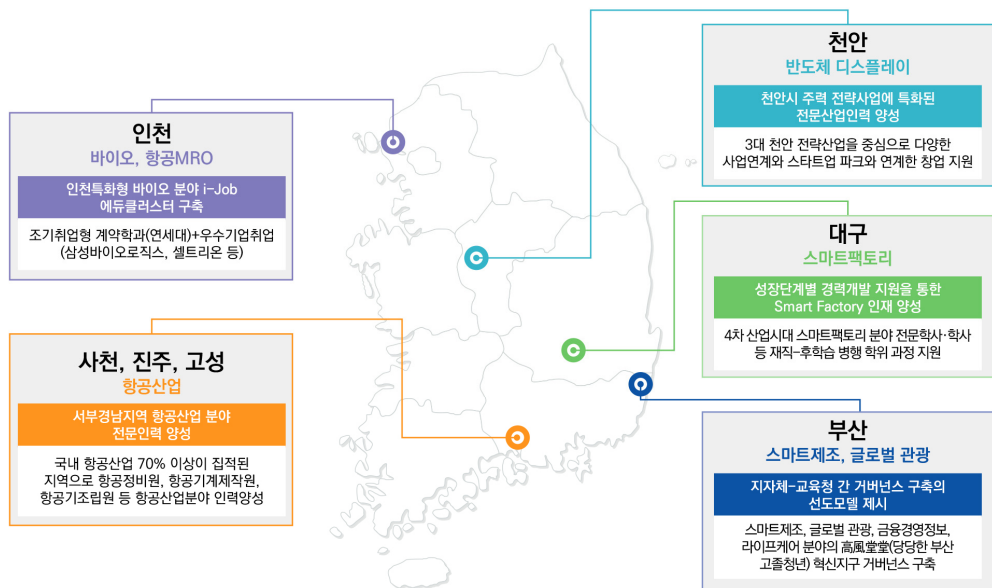
- 이상과 같이 현재 2개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고 단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학습 시기를 조정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설계와 준비에 보다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다변화 추구

- 대구광역시청은 지역의 유망기업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팩토리 관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성공리에 관리 중임. 하지만 사업 종료에 대비하고 후속 지원사업의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유사 사업을 신규로 창안해 시험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청이 신규로 창안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인접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이 유리함.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 실패 가능성을 줄이면서 참여기업의 저변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혁신지구사업으로 항공에 특화된 지역연계 현장실습을 추진하면서 입문 단계와 학점제 교육 단계에서 인천산학융합원을 활용해 융합교육을 실시한 이후 채용연계 현장실습으로 연계하였음. 또한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의 경우도 지자체(진주·사천·고성)-교육지원청-대학(한국폴리텍 등)-기업(지멘스코리아 등)이 연계하여 대학에서 학생 교육 후 기업으로 취업을 매칭하였음. 나아가 천안시 2030청년 복지센터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 9개 기업체와의 협업을 중시.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先)취업과 지역 대학에서의 후(後)학습을 연계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부산은 제조업부터 관광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접목해 고졸 취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했음

그림 4-2 | 2021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지구별 주요 성과



직업계고 구조개혁을 통해 마이스터고나 IT관련 학과 비중확대

- 고졸 인재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직업계고의 교과 과정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함.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은행 점포가

최근 5년간 1000여 개 줄어들 정도로 은행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음. 따라서 고교 졸업 직후 은행에 취업하길 희망한다면 디지털 역량을 미리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임.

-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육성 차원에서 현재 특성화고보다는 마이스터고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산업수요에 맞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 마이스터고는 스위스, 독일 등 직업교육 선진국과 유사한 완결적 직업교육 모델로 부상했기 때문임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78.1%가 대졸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학위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졸업생은 82.5%이며, 그중 78.4%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겠다고 응답함.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71.4%가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있으며, 70.1%가 학교 교육이 업무수행 시 유용했다고 평가함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산학협력 기업으로 입사하거나 공개채용 등을 통해 입사하여,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의 맞춤형 교육과정 및 채용연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남
-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현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84.3%이며, 고용 안정성에 만족하는 비율은 76.8%로 높게 나타남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지역산업·자원과 연계한 학과재편과 신규 설립이 유망한 수단임. 일례로 우수사례인 전북교육청의 경우 순창 발효식품 마이스터고, 익산 식품 가공 마이스터고 등 지역산업·자원과 연계한 학과재편과 신규 설립을 추구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또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래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수소 자동차 등과 연관된 학과 개편도 전북교육청 주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 생활에 친숙한 MZ세대의 직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 첨단 산업 및 유통(홈쇼핑, 물류 등) 관련 학과의 확대가 필요함. 퇴근 후에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 제조업의 70%가 자리한 달성군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이나 도심지 노후 공단의 리모델링을 서둘러야 함

- 고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협업해 고3 학생은 물론 중3 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 기회도 강화해야 함. 즉, 직업계고와 인문계고를 선택하는 단계에 있는 중3 학생에 대해서도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함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

- 직업계고는 산업현장의 축소판과 같으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격과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해야 함. 직업계고 학점제가 2022년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학교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직업계고 전반으로 학점제가 확산되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해 신축적인 학과편제나 세부 전공 신설이 촉진될 것임. 대구광역시청은 교통의 중심지에 강당, 회관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유해 학습하기에 유리한 시설과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 가능함
- 대학에서 추진 중인 혁신공유대학(<https://www.disu.ac.kr>) 개념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계고 특화 전공의 설치에도 활용 가능. 즉,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혁신공유대학 차세대 반도체 융합학부의 경우 전국 7개 대학에서 자유롭게 학점을 취득하며, 마이크로 디그리(3과목 수강)부터 복수전공까지 맞춤형 학위증서를 발급함

대학에서 추진 중인 혁신공유대학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계고 특화 전공의 설치

-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2021년 5월 시작한 혁신공유대학은 46개 대학이 구성한 8개 연합체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음. 각 분야별 연합체는 2021년 각 102억 원씩 816억 원을 지원받는 한국판 뉴딜의 신규 과제로,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사업의 요체임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격차 확보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화되자 반도체산업 등 첨단 기술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와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고등 학교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는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대구시의 경우도 흥준표 시장의 민선8기 정책제안에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컬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대구 마이크로 컬리지 운영 등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표방하였음
- 대구권 대학이나 고교가 연합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인력양성 우수사례는 반도체학과 신설(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영진전문대), 4차 산업 인재 양성 학과 추진(경북공고,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대구공고, 영남공고, 경북여상),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창출(대구 보건대-직업계고),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추구(대중금속고-대구TP 협약) 등임. 나아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연계관계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나 대구교육청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교무 또는 산업부장을 대상으로 ‘학점제와 연계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집중 컨설팅’을 수행. 즉 인력양성 유형에 적합한 학과 내 세부전공(코스) 설계 및 학과 간 선택과목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음



Who
전공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한다!

When & where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반도체 분야 최고의 대학인 7개 대학에서 만나자!
(강원대/대구대/서울대/송실대/조선이공대/중앙대/포항공대)

What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Why
우리나라가 기술선도 국가로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될
다수의 신기술 혁신 인재 양성이 목적

How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가 교류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분야 비전공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

직업계고 학과개편 우수사례의 적극적 벤치마킹

- 교육부는 4차산업혁명 심화와 신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체질개선 전략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시행. 이에 부응해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응모한 결과 10개교 30학급이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85억 원을 지원받았음. 특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유형 전환 대상교로 군위 효령고등학교(항공 분야)가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음
- 대구도 지난 2020년부터 학과개편을 진행 중인데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의 스마트농생명과학(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대구과기고의 스마트전기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향후 지속적인 학과개편을 통해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으로 기대됨

직업계고에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

- 현장 기술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직업계고에 대학처럼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특성화고나 일반고에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유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허가 장벽을 우회하는 마이스터고 확대 지정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에 대한 명문 대학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을 대상으로 고교 계약학과를 설치한다면 재학생 만족도가 증진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산업 분야별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교나 대학의 전문학과나 관련 학점을 이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인턴이나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관리도 필요함

- 과거 구미에 자리한 금오공고에 우수 인재들이 몰렸던 이유도 부서관 취업보장과 금오공대를 활용한 상급학교 진학을 연계했기 때문임. 참고로 지방 교육대학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도 명문대 반도체 계약학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강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발전 방안으로는 도제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 제고, 도제학교 운영 안정성과 체계성 강화, 산업계 주도성 강화 및 기업역량 발굴지원 강화, 도제학교 교육과정 관리 및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이 있음
- 도제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공업계로 한정되어있던 학과를 IT, 서비스 등 비(非)공업분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운영기간 유연화, 사물인터넷과 3D 인터넷 등 신기술분야 학과 추가 시 우대조치 등이 해당될 것임

2) 고졸 사원의 초기 기업적응력 제고

직업계고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성캠프와 시민교육 제공

-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직업계고 예비 졸업생들의 회사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성캠프나 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 있음.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절감이나 시간절약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시설을 합동 강의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K-MOOC 강좌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기회 제공도 강구해야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의 직업생활>이라는 교재를 개발해 자기존중, 대인관계, 일 잘하는 요령, 자기관리, 취업성공전략, 신입사원 경력개발, 전문가의 사명, 리더십과 팔로워십 등의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음.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경기도기술학교의 경우도 해당 교재를 장단기 코스 수강생들에의 교육교재로 활용 중임

- 직업계고 출신 신입 직원들이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적 직무수행을 통해 잠재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자아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직업계고 졸업생을 채용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경영자원인 신입 직원 개개인의 조직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역량 발휘에도 유용하므로 입사 직후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구직 단념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구직 의욕을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도 해주는 정책지원 강화도 필요함

선취업 후진학에 주력하는 정책기조의 완결성 확보²⁾

-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지원방안으로 제시된 ‘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진학’한다는 의미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 기조의 보완대책이 필요함. ‘현장 중심 중등직업교육 인과가설’은 취업기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취업 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과 직업계고 진로 교육의 책무성 저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서열화, 학교 간 취업률 경쟁 강화를 초래하였음(이숙영·안선희, 2017)
- ‘선취업 인과가설’은 고졸 취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금, 승진, 근무환경 등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음. 이때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 정책을 의미하는 ‘선취업 정책’의 범주에는 범정부적 취업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 병역에 의한 취업애로 해소,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됨(이숙영, 2017)

2) 이숙영·안선희, 2017. 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 분석: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후진학 인과가설’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후진학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후진학한 졸업생들은 기대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때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의미하는 ‘후진학 정책’의 범주에는 근로자의 후진학 장애 해소, 후진학 경로 다양화, 후진학 활성화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됨(이숙영, 2017)
- ‘열린 고용·인사관리 인과가설’은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 지원, 성공경로 제시 및 다양화, 열린 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열린 고용 지속추진 기반 구축 등과 같은 의미의 열린 고용·인사관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으나 정책 수단의 미비와 강력한 정책집행 기제의 부재로 열린 고용·인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제시한 문제를 극복하는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둘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평가 시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유지율, 4대 보험 가입률 등 질적인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함. 셋째, 후진학 경로 확대 및 다양화보다 후진학 장애 해소에 주력하고 후진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넷째, 열린 고용·인사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구비하고 실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
- 북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일학습병행 풍토가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개인의 진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촉진될 것임.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일학습병행을 선택한 신입직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언행이 직업계고 학생의 이직을 부추긴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이 줄면서 대학들도 고졸 인재의 평생학습 필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이를 고졸 인재의 안정적인 일·학습 병행은 물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기업의 조직문화 혁신과 인사노무관리 선진화를 유도

- 직업계고 졸업을 전후해 입사한 직원들은 기업의 권위적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나 사내근무에서 애로를 토로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내 ‘나부터 먼저 인사하기’나 ‘동료 간 친절 캠페인’을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함
- 산업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교류의 장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불어 우수 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포상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인재 채용 활성화가 지역 균형발전의 첩경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유도. 일례로 쿠�팡은 전국 각지에서 채용된 고졸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인사(人事)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멸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방에서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어주면 기업도 고졸 인재 채용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핵심 인력이 지역 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조직문화를 조장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필요.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 제도를 고도화하면 청년들의 장기 재직문화 형성에 유리할 것임. 더불어 연금제도도 학업을 이어 나가려는 고졸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직업계고 출신 18~23세 취업자의 업무배치요령 전파

- 고졸 취업자의 입사 초기 직장생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선배 직원을 멘토로 지정해 맞춤형 케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고졸 취업자 업무배치 요령이나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관계 기관의 행정지도 강화도 필요함
- 근로자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직업계고 특별전형으로 취업한 사례자의 경우 성과와 인성은 우수하다는 평판을 받았음. 하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고졸

취업자를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민원업무에 곧바로 배치할 경우 스트레스 과다나 공황장애 발병으로 퇴사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고졸취업자에게는 충분한 보호 기간과 보호장치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해야 함

직업계고 학생들의 이직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강화

- 초과 근무 및 교대 근무 문제: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취업자에게 8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함
- 입사 초기 일정기간 동안(6개월~1년) 주간 근무만 배정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함. 또한 복지후생과 자기계발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을 하는 직원의 경우 주간 근무만 편성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 주 52시간이 정착되고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이 엄격히 구분될 수 있는 기업 및 근로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시의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 도시생활에 익숙한 신세대는 기업선택 시 쾌적한 근무환경 확보나 퇴근 후 여가시간 활용 여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 시설이 없는 외곽 지역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기업 시설 개선, 복지 시설 확충, 출퇴근 용이성이 이직률을 낮추는 핵심 변수임. 대구지역의 낙후된 공단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따라서 구로공단의 리모델링을 주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대구시의 정책기획이 필요함

3) 지역의 고졸인재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대구광역시청이 연계하는 직업계고 일자리 거버넌스의 다변화

- 대구광역시청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직은 물론 유관 조직들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협치와 협업에 유의해야 함

- 벤치마킹 사례인 부산광역시청은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직업계고를 포함한 청년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 특성화고 행복JOB 드림사업 등을 추진. 출자·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을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 현장실습 참여 기업 교육지원, 졸업자 취업매칭지원 등에도 주력
-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6개교),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사업 18개교,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마이스터고 박람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기능경기대회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등과의 간접적 연계에도 주력하였음
- 충청남도는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교육지원청의 협업을 활용해 청소년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자기주도적 진로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음. 일례로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보령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보령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을 운영. 시설관리공단은 보령커피바리스타학원 등 88개 사업장의 체험처 발굴, 전문직 특수분장사 진로직업체험 등 3개의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령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대구광역시청이 주관하는 직업계고 일자리 정책수단의 창안

- 중앙정부가 직업계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산업부·중기부 등이 제공하는 정책자금, 세제, 금융 등임. 산업부는 기업의 정규직 대비 고졸자 비율을 핵심 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고용부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시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14만 명, 고졸자<18~23세> 2만 명 포함). 조달청은 공공조달 물품구매 낙찰자 선정 시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중기부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정책자금을 신속·우선·집중 지원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직업계고 존속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기업에 1명당 최소 1,5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 것처럼 획기적인 지원정책 수단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고졸 취업 선도기업에 은행금리 우대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고졸채용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는 부족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 내외부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

- 영미나 유럽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조를 통해 재정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교나 대학이 학과 칸막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연계 강화에도 소극적인 편임
-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이공계 졸업생을 중시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술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하에 학제 간 융합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부상하고 있음
- 지역의 고교나 대학 붕괴는 지방소멸을 재촉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연계협력의 강화가 필요함.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내 17개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 부산시교육청과 지역 대학들도 ‘부산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감과 지역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실무협의회를 결성. 또한 경상북도는 500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 확대 및 특성화 인프라 개선을 추구
- 대구광역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참여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학습병행으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격려 차원에서 우수한 학업성적을 창출한 학생에게 소정의 생활비 지원장학금 지급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지자체 대응 투자금의 대규모 투입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적정 비율의 차등 지원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확산되어야 함. 지역과 교육의 위기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만 맡겨 두기는 어렵기 때문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문제해결이 촉진될 것임
- 혁신지구 참여 대학에서 스마트팩토리 분야 기초, 실무교육 진행 및 기업체 취업 연계. 기업맞춤형 교육과 대학-기업 간 일학습병행 학사운영 확대 필요. 현장중심 실무

교육과 학점취득이 용이하도록 주말반과 비대면 강의 확대 등 지속적인 학사운영 혁신방안 고안 필요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조례상 우대조치 강화

-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인센티브를 포괄하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조례의 개정도 필요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우대조치는 분야별 시상, 시정홍보 활용, 행정편의 제공 등임
- 일자리창출 우대조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불어 대구광역시 및 일자리 유관기관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해결 정책의 초점을 중등 직업교육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에 앞서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을 지표화해 점검과 지도를 병행해야 함. 일례로 기업이 단체협약을 통해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해 학위를 취득한 직원에게 승진, 보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
- 고졸 인재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구직 수요와 기업의 구인 수요를 잘 매칭해주는 자치단체 차원의 취업 알선 기능도 강화해야 함.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공지능(AI) 방식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임
- 고졸 인재 채용 확대 방안으로 학력과 무관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과 고졸자들끼리만 경쟁하는 별도 채용 방식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함. 따라서 해당 채용방식을 먼저 도입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역 기업에 폭넓게 전파하는 교육과 홍보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함

V

결론 및 제언

분석결과의 요약

연구의 추진배경

-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상황에 주목 하면서 대구광역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일자리 부족 현상과 병행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생산현장 인력양성과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직업계고 우대정책이 필요함
- 직업계고를 졸업한 취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전문성을 개발하여 직장 내 자아실현과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지원 방안 강화 필요

대구광역시 정책 현황과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협업해 2019년 시작한 대구형 현장학습 사업과 2021년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대표 정책임
- 대구광역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을 유지하고 혁신하기 위해 서는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지속되어야 함

- 국내 우수사례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교육부의 직업계고 실습제도와 고교학점제, 전국 교육청의 특화사업 등에 주목하였음
- 해외 우수사례로는 일본의 지역사회 취업알선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등에 주목하였음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강화방안

- 산업현장 맞춤형 심화교육의 현실적합성 제고방안으로 직업계고 지원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다변화 추구, 직업계고 구조개혁을 통해 마이스터고나 IT관련 학과 비중확대,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 직업계고 학과개편 우수사례의 적극적 벤치마킹, 직업계고에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였음
- 고졸 사원의 초기 기업적응력 제고방안으로 직업계고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성 캠프와 시민교육 제공, 선취업 후진학에 주력하는 정책기조의 완결성 확보, 기업의 조직문화 혁신과 인사노무관리 선진화를 유도, 직업계고 출신 18~23세 취업자의 업무배치요령 전파, 사무직 여성 감정노동자의 취업유지율 장애요인 제거, 조직융합 마인드를 증진하는 교육기회의 확대, 직업계고 학생들의 이직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지역의 고졸인재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대구광역시청이 연계하는 직업계고 일자리 거버넌스의 다변화, 대구광역시청이 주관하는 직업계고 일자리 정책수단의 창안, 지방자치단체 내외부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조례상 우대조치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제언

신정부 정책기조와 민선8기 대구시정과의 정합성 확보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격차 확보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화되자 반도체산업 등 첨단 기술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와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고등학교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는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홍준표 시장의 민선8기 정책제안에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컬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대구 마이크로 컬리지 운영 등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표방하였음

정책체제와 정책수단의 체계적 설계와 활용

- 지역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는 정책대상의 포괄성, 정책프로그램의 적극성, 정책재원의 독립성 등임. 대구광역시는 3가지 모두 저조한 실정으로 산업 정책에 의존하는 신규일자리 창출정책 편향과 중앙정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의존 현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상아, 2020)
- 대구지역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기업정착율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획안을 주도한 정책추진주체인 대구광역시 시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공조를 전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추진체제의 안정적 제도화가 필수적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하는 정책수단의 활용은 차등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방식 보다 보편적이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바람직함. 일례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직업계고 및 참여기관의 교육 서비스와 학생만족도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정책목표와의 시너지 추구

-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기업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성과는 일반계고는 물론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이 가능함
-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기업정착률이 저조한 원인에는 군대와 진학이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음. 따라서 일·학습 병행이라는 정책목표 확산대상을 직업계고 졸업생을 초월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화도 필요함

정책의 주체와 단계별 실행전략의 수립과 실천

-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체와 단계별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수단은 대구광역시를 최우선 정책주체로 상정한 것임. 따라서 대구광역시 주도로 대구시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야 함. 더불어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공공기관이나 지방 유관기관의 참여도 유도해야 함

참고문헌

- 강창희. 2022. 직업역량 개발과 교육부 폐지론. 매일경제. 2022. 4. 7.
- 교육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교육부. 2022. 2020~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현황.
- 김경태. 2022. 고등직업교육 체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한국대학신문. 2022. 4. 6.
- 김정렬 외. 2019.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운영 분석 및 평가편람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 2019-위탁-16(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현준·김성오. 2019.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인터뷰 보고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 안재영·김세훈. 2022.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지표와의 관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RIVET Issue Brief 236호.
- 윤종현. 2019.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식 변화. 직업능력개발연구원.
- 이덕환. 2022. 계약학과는 산업계 인력난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동아시아언스. 2022. 7. 20.
- 이병기. 2022.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현주소. 중도일보. 2022. 4. 6.
- 이상아. 2020. 한국지역고용정책 유형화와 그 유형별 특성 비교: 16개 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2): 197~227.
- 이숙영·안선희. 2017. 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 분석: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30(1): 323~356.
- 이승협. 2022.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 분석과 함의. 대구경북연구 21(2): 109~131.
- 이정민·유명환. 2021.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RIVET 웹진 456호.
- 정의진·최만수·최세영. 2022. 학력보다 능력... 일자리 미스매칭, 고졸 인재 채용으로 풀자. 한국경제신문. 2022. 5. 27.
- 정지선. 2022.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일원화로 평생직업교육의 발전 도모. 한국대학신문. 2022. 4. 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7.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 운영사례 및 발전방안.